

해오름 기운 찬  
새해 첫달입니다.

샹된 기운 갈아엎는  
강기질 소절음으로  
시작합니다.

지난달 시간내주시고  
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 
큰 힘이 되었습니다.

글 재주가 부족해서  
선생님이 삶을 충분히 잘 살려  
답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.

늘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 
인생의 삼모작을 빛나게 가꾸어  
가세요.

작아 1월호를 보냅니다.

— 감사과 존경의 마음으로  
작아 기돈